

앨런 사이나이 "올해도 미국 경제 성장할 것...주식 비중 높여야"

☎ 최성준 기자 | ⌚ 승인 2020.01.16 14:56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2.5% 예상
기술 발전으로 경제 확장국면 지속



(사진 : 세계경제연구원)

<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올해도 미국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적인 경제 예측 전문가 앨런 사이나이 디시전 이코노믹스 회장은 16일 세계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상황 속 미국 경제 확장국면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분쟁 합의와 브렉시트 확정으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 감소와 중앙은행의 저금리 기조로 미국 경제가 확장국면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11년간 미국 경제는 확장국면을 유지해왔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5%, 기업 수익률은 6~7%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낮은 물가상승률로 소비지수와 저축율이 높아진 점과 실업률이 낮아진 점 또한 경제 확장전망에 힘을 싣는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실업률은 3.5%로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임금 상승률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 여력도 높아졌다.

사이나이 회장은 낮은 물가상승률의 원인으로 기술 혁신을 꼽고 아마존효과를 예시로 들었다. 아마존효과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소매판매점을 대체하며 상품가격이 인하되는 현상을 뜻한다. 기술 발전으로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되며 소비자들이 최저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물가상승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 기술 발전을 통해 산업의 효율성이 높아져 일자리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일자리로 생산성이 증가해 이 또한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률을 2% 목표로 하고 있어 앞으로도 완화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며 "경제성장으로 미국 증시의 상승장이 전망돼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주식의 비중 확대도 추천했다. 한국 경제는 성장이 저조하고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상황이 개선되면 한국 기업도 혜택을 볼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앨런 사이나이 회장은 세계 경제 전망 및 투자자문 기관인 미국 디시전이코노믹스의 회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 중인 세계적 경제 예측 권위자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성준 기자

기사 주소: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11602109957607010

앨런 사이나이 "美경제 기록적 확장국면...한국도 혜택 볼 것"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 입력: 2020-01-16 15:21 | 수정: 2020-01-16 17:52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서 강조
"미국 가계 저축률·소비력 모두 높아
미중 무역갈등 완화됐 한국도 긍정적"



"미국 경기는 금융위기 이후 11년 동안 확장해 왔습니다. 향후 2~3년간 성장 기초가 이어지며 미국은 기록적인 확장세를 경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기가 2022년까지 확장세를 이어가는 등 기록적 확장 국면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경제 예측가인 앨런 사이나이(사진) 디시전 이코노믹스 회장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강연에서 "올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대부분 해소되는 데다 감세 효과, 소비 증가가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는 2022년까지 확장국면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사이나이 회장은 올해 미국 성장률을 2.5%로, 내년은 2.25~2.5%로 전망했다. 올해 글로벌 성장세는 작년(4.3%)에서 소폭 상승한 4.5%를 나타낸다고 예상했다.

그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등과 관련된 글로벌 불확실성이 최근 완화했다"며 "이는 경제에 분명 긍정적이며 미국 증시 역시 강세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나이 회장은 기술발전이 미국의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꼽았다. 소위 '아마존 효과'로 불리는 저물가

로 미국의 소비력이 높아져 경제가 탄탄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향후 10년간 미국은 침체 가능성이 0에 가깝다"며 "낮은 물가와 소득 증대로 소비자들의 소비여력과 저축률이 동반 상승하고, 가계지출도 늘고 미국의 주식시장도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경기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소비자, 기업, 정부가 위기에 취약했고, 소비심리가 나빠지며 주가와 부동산가격이 폭락했다"며 "지금은 가계의 저축률, 소비력이 모두 높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외부에서 충격이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미국 경제는 순항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사이나이 회장은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하며 한국 경제도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한국 성장률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미중 갈등이 개선되면서 한국도 혜택을 볼 것이다.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이나이 회장은 리먼 브러더스 글로벌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인물로, 세계 300여개 금융기관에 경제전망과 시장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디시전 이코노믹스를 이끌고 있다. 그는 지난해 초에도 2020년까지는 미국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DigitalTimes All Rights Reserved.

앨런 사이나이 디시전이코노믹스 회장 "올 대기업 이익, 6~7% 성장 가능"

문가영 기자 입력 : 2020.01.16 17:51:12 수정 : 2020.01.16 21:43:13

"기술발전에 따라 미국의 경기변동 주기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앨런 사이나이 디시전이코노믹스 컨설팅 회장은 16일 IGE세계 경제연구원에서 주최한 조찬강연에서 올해도 미국이 경제 확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술 발전에 따라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새롭게 변모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현재 미국은 11년간 확장국면을 이어 가는 중이고 이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미국 경제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아주 젊고 활기찬 몸"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나이 회장은 기술발전이 불러온 가장 큰 변화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낮아지는 현상, 즉 필립스 곡선의 와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5년 동안 미국의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3%까지 내려왔고, 동시에 연준의 통화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목표 물가상승률인 연 2%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좋은 현상의 가장 큰 동인은 바로 기술발전에 따른 소비 확대"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아마존 등 인터넷을 통한 가격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정보격차는 줄어들고 소비자 잉여가 커졌다. 스마트폰 덕분에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언제 어디서나 쇼핑을 즐기게 된 것도 소비가 늘어난 배경이 됐다. 그는 다만 기술발전에 따른 공급 증가로 실업률이 줄어들고 물가도 안정됐지만 가계소득이 정체되는 현상도 뒤따랐다고 덧붙였다.

올해 미국 기업 영업이익이 6~7%가량 성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제시됐다. 이렇듯 미국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이 이어지면서 2020년 미 증시와 더불어 글로벌 증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가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타임즈

HOME > 기업과 경제 > 경제 > 경제일반

앨런 사이나이 "미국 호황 지속...한국도 미·중 갈등 완화 수혜"

김지호 기자 / 기사작성 : 2020-01-16 14:36:47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미국 경기가 향후 수년간에도 호황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완화로 한국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됐다.

미국의 경제 예측가인 앨런 사이나이 디시전 이코노믹스 회장(사진)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강연에서 "올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대부분 해소되는 데다 감세 효과, 소비 증가가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는 2022년까지 확장국면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나이 회장은 리먼 브러더스 글로벌 수석이코노미스트을 지낸 인물로, 세계 300여개 금융기관에 경제전망과 시장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디시전 이코노믹스를 이끌고 있다. 그는 지

난해 초에도 2020년까지는 미국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사이나이 회장은 "미국 경기는 금융위기 이후 11년 동안 확장했는데, 향후 2~3년간 성장 기조가 이어지며 미국은 기록적인 확장세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2.5%로, 내년은 2.25~2.5%로 전망했다. 올해 글로벌 성장세는 작년(4.3%)에서 소폭 상승한 4.5%를 나타낸다고 예상했다.

그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등과 관련된 글로벌 불확실성이 최근 완화했다"며 "이는 경제에 분명 긍정적이며 미국 증시 역시 강세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나이 회장은 미국의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가장 주된 배경으로 기술발전을 꼽았다. 기술 발전에 소비자들은 싼값에 물건을 살 수 있어, 소비를 늘리면서 동시에 저축도 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이 경기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소비자, 기업, 정부가 위기에 취약했고, 소비심리가 나빠지며 주가와 부동산가격이 폭락했다"며 "지금은 가계의 저축률, 소비력이 모두 높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충격이 발생하지만 앎는다면 미국 경제는 순항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사이나이 회장은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하며 한국 경제도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한국 성장률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미중 갈등이 개선되면서 한국도 혜택을 볼 것이어서 한국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s://www.asiatime.co.kr>]

앨런 사이나이 "한국, 미·중 갈등 완화에 혜택 볼 것"

기사입력 2020/01/16 10:11 송고

"미국 경기 2022년까지 확장...기록적인 확장세"

미국 경제 예측 가 세계경제연구원 강연



앨런 사이나이 디시전 이코노믹스 회장
 [세계경제연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미국 경기가 2022년까지 확장세를 이어가는 등 기록적 확장 국면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경제 예측가인 앨런 사이나이 디시전 이코노믹스 회장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강연에서 "올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대부분 해소되는 데다 감세 효과, 소비 증가가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는 2022년까지 확장국면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나이 회장은 "미국 경기는 금융위기 이후 11년 동안 확장했는데, 향후 2~3년간 성장 기조가 이어지며 미국은 기록적인 확장세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2.5%로, 내년은 2.25~2.5%로 전망했다. 올해 글로벌 성장세는 작년(4.3%)에서 소폭 상승한 4.5%를 나타낸다고 예상했다.



사상 최고치 알리는 뉴욕 증권거래소 TV화면

(뉴욕 AP=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황을 알리는 장내 TV 화면. 이날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미중 무역 1단계 합의 서명을 위해 다음주 워싱턴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jsmoon@yna.co.kr

그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등과 관련된 글로벌 불확실성이 최근 완화했다"며 "이는 경제에 분명 긍정적이며 미국 증시 역시 강세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나이 회장은 미국의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가장 주된 배경으로 기술발전을 꼽았다. 기술발전에 소비자들은 싼값에 물건을 살 수 있어, 소비를 늘리면서 동시에 저축도 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이 경기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소비자, 기업, 정부가 위기에 취약했고, 소비심리가 나빠지며 주가와 부동산가격이 폭락했다"며 "지금은 가계의 저축률, 소비력이 모두 높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충격이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미국 경제는 순항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사이나이 회장은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하며 한국 경제도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한국 성장률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미중 갈등이 개선되면서 한국도 혜택을 볼 것이다.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이나이 회장은 리먼 브러더스 글로벌 수석이코노미스트을 지낸 인물로, 세계 300여개 금융기관에 경제 전망과 시장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디시전 이코노믹스를 이끌고 있다. 그는 지난해 초에도 2020년까지는 미국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js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6 10:11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경제 예측가 앨런 사이나이 “美경제 기록적 확장 계속될 것”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특별강연
미국 경제 소비가 뒷받침...침체 가능성 제로
“한국경제도 나아질 것...주식 사라”

등록 2020-01-16 오후 12:08:19
수정 2020-01-16 오후 2:04:18
김경은 기자



앨런 사이나이 디시전 이코노믹스 회장이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조찬 강연에서 올해 미국 경제를 전망 하고 있다. (사진=세계경제연구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국의 대선 이후 충분한 시간이 흐른 이후까지도 미국의 경기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앨런 사이나이(사진) 디시전 이코노믹스 회장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앨런 회장은 미국내에서 높은 경제 전망 적중률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경제학자다.

일반적인 경기 파동 주기로 10년 주기설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앨런 회장은 11년째 이어지는 미국의 기록적인 경기 확장 국면이 더 이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그의 주요 논거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저물가 현상이다. 소위 '아마존 효과'로 불리는 저물가로 미국의 소비력이 높아져 경제가 탄탄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향후 10년간 미국은 침체 가능성이 0에 가깝다"며 "낮은 물가와 소득 증대로 소비자들의 소비여력과 저축률이 동반 상승하고, 가계지출도 늘고 미국의 주식시장도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앨런 회장은 "소비자, 기업, 은행, 정부 모두 취약했던 2007~2008년과는 다르다"며 "이같은 양호한 소비심리에 더해 완화적 통화 재정정책도 경제의 확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확장국면에도 실효성 있는 재정·부양책이 실시되고 있다"며 "다른 국가에서도 재정정책과 감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주요 중앙은행들 가운데서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실시할 정도로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의 실효성은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그는 "유동성 함정에 대한 우려만큼 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타결, 영국의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도 올해 전망을 낙관하게 하는 요인이다.

그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낙관론을 펼쳤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일단락 되거나 최소한 소강국면에 들어서는 상황을 전제로 한 전망이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개선되면 한국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기업의 저력과 경제전망을 볼 때 한국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경기 불확실성 해소...중 성장률 반등, 미 확장세 3년 지속

[중앙선데이] 입력 2020.01.18 00:30 수정 2020.01.18 00:31

세계 경제 '족집게' 사이나이 2020 예측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류허 부총리가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미국 컨설팅 업체 디시전이코노믹스의 앨런 사이나이(사진) 회장은 수년간 파격적인 낙관론으로 화제를 모은 경제 예측 전문가다. "세계 경제가 저물가와 고성장의 '뉴뉴노멀(new new normal)' 시대에 진입했다(2018년 초)" "2020년까지 미국 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장 호황기를 유지할 것이다(지난해 초)". 세계 경제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한 가운데 미국 경제 얘기는 현재까진 100% 들어맞았다.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지난해 7월 "미 경기 팽창이 2009년 6월 이후 121개월 연속 이어져 집계가 시작된 1854년 이후

165년 만에 최장기 호황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블랙먼데이·금융위기 등 정확히
예측**

**기술 발전이 미 성장 핵심 원동력
미·중 관계 개선돼 세계 경제 낙관**

**한국 증시 저평가돼 긍정적 전망
부의 불균형 세금으로 최소화해야**



미국의 경제 예측가 앨런 사이나이. 김경빈 기자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IGE) 조찬강연 참석차 방한한 사이나이 회장은 이날 강연에서도 “올해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대부분 해소되고, 감세 효과와 소비 증가가 본격화하면서 미국 경제도 2022년까지 확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거침없는 낙관론을 펼쳤다. 과거 미 월가가 인정했던 경제 예측의 대가는 이번에도 ‘족집게’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가 매번 낙관론만 전하는 것은 아니다. 1987년 블랙먼데이(10월 하루 만에 미 주가가 22.6% 폭락한 사건),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금융위기 등을 예고해 정확히 맞혔다. 중앙SUNDAY는 이날 강연 직후 그를 단독으로 만나 올해 전망 등을 들어봤다.

경제학자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3년을 어떻게 평가하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종종 백악관에서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발언을 갑작스레 하면서 부정적 영향도 주곤 있지만, 각종 경제지표를 양호하게 유지해 민간 소비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세계 거시경제 불확실성은 세간의 시선과 달리 오히려 줄었다고 본다.”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해 재정적자가 1조200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집계했다. 전년 대비 17.1%나 증가한 것인데, 연간 1조 달러 돌파는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아직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 이자율이 급격하게 올라 부담되는 수준이 된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경기 부양이나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재정지출이다.”

강연 중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세계 경제 호황을 주도한다고 했다. 유럽 등 성숙시장에도 유효한 얘기인가.

“사실 미국이 독특한(unique) 경우다. 미국은 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춰 풍부한 자금을 십분 활용, 기술 기반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 이와 달리 유럽은 미국보다 느리게 움직이고 보수적이다. 신기술에 덜 민감하고 각국 정책도 국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해 이런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이날 강연에서 사이나이 회장은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대한 여전히 낙관론을 강조했다. 그는 근거로 ▶미·중 무역갈등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같은 불확실성 해소 ▶세계 증시 호황으로 기업 수익률 상승(여력 비축을 의미) 등을 들었다. 또 하나 강조한 대목이 기술 발전이다. 그는 아마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다 값싸고 간편한 소비가 가능해졌음을 예로 들면서 기술 발전이 소비 증가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술 발전이 경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예컨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사람 일자리가 더 줄어들지 모른다.

“지금이 전환기다. 세계 경제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당장은 대체 일자리를 찾는 게 어렵지 않다. 또 자동화 관리 등을 위한 일자리는 전보다 많이 생겨날 것이다. 기회는 많다.”

트럼프 정책, 소비심리에 긍정적 영향

중국은 근래 들어 성장이 둔화됐다.

“지난해가 저점이었고 바닥을 지났다.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다. 투자 자문도 하는 우리 회사(디시전이코노믹스)는 중국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의 구매력과 무역 현황 등으로 봤을 때 신흥시장 중엔 한국·중국·태국 등 아시아 국가 상황을 브라질 등 중남미 쪽보다 계속 좋게 보고 있다.”

그는 강연에서 올해 한국 경제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최근 성장률이 저조했지만 미·중의 관계 개선으로 한국 기업도 수혜 대상이 될 것이며, 증시 또한 저평가됐다는 이유에서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도 좋지만 이면에서는 부(富)의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결국 세금으로 최소화할 문제다. 상위 소득층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하위 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엔 재정 지원을 늘리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데 각국 정부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사이나이 회장

1939년생.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리먼브러더스 이코노미스트(1983~96년)를 거쳐 96년 디시전이코노믹스를 설립했다.

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

인쇄하기

취소